

제 2 호

춘천

聖市新聞

발행·인쇄인: 조남진 편집인: 조충환 (200-091) 춘천시 효자1동 373-90 대표전화(0361)256-1260-1 FAX(0361)257-126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창립2주년 감사예배



▲98년 9월 24일 어린이회관에서 개최된 창립2주년 예배

98년 9월 24일 춘천시 삼천동 어린이회관 대강당에서 춘천성시화 운동본부 창립2주년 감사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날 예배참석자들은 지난 2년 동안 기도와 물질 등으로 성시화 사업에 적극 참여한 성시위원들이었다.

춘천 성시화대표회장인 윤철중목사님은 「성시화를 위한 성도의 사명」이란 말씀으로 회원들의 마음에 성시화의 열정을 더해 주었으며 직전대표회장인 임택창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회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복을 누릴수 있었다.

동원감리교회 찬양단과 강원은행 신우회 찬양단의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찬양은 회원들의 마음을 천국으로 향하게 하였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성시신문은 회원들의 표정을 환하게 하였으며, 성시화 운동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게 하였다.

제2부 회원총회에서 제2대 성시화운동 본부장에 조남진 장로님을 선출하였으며 성시화운동본부 운영규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기획위원회에 전문적인 검토를 위임, 회원들에게 서면 통지하기로 하였다.

이제 춘천성시화운동은 제2기의 거보를 내딛게 되었으며 본부장의 축적된 경험과 능력 그리고 무한한 저력과 성시회원들의 협력이 결집되며 모든것을 통달하시고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춘천성시화는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다.

성시신문 운영위원 위촉

1998년 9월 29일 춘천성시신문 발행 및 건설한 운영을 위하여 성시신문 운영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모든 위원들은 성시신문발행에 필요한 일을 위해 희생봉사할 것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서약하고 서명날인하는등 결의를 다졌다.



강경중 권사
강원일보사 출판국장
춘천성시신문 편집고문

이날 회의에서 성시신문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위원장, 총무, 5개분과를 두기로 의결하였고 분과위 구성은 위원장단에 위임하였다.

앞으로 이들은 성시회원님들의 손과 발이 되어 보다 알차고 건실한 성시신문을 만들어 성시화운동에 박차를 가하는데 밀걸음이 될것이다.

운영위원회 조직을 보면 위원장에 조충환 목사 총무 허광웅장로 광고분과위원장 맹영웅장로 교회분과위원장 김동렬장로 선교분과위원장 이영규장로 회원분과위원장 박영휘장로 편집분과위원장 김준언목사

운영위원 김남철장로, 김용배 장로, 민정옥 장로, 김용진 장로, 신종철 안수집사, 김영선 집사, 전시은 집사, 허광 집사, 정승기 집사, 김성옥 안수집사, 정유양 집사, 이용규 장로, 한제화 권사, 김봉옥 안수집사, 황병환 권사, 박재복집사, 명위식 목사, 최상도 목

사, 신성균 목사, 이상 2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그리고 동운영위원회는 신문편집제작의 전문가인 강경중

권사(현 강원일보 출판국장)를 편집고문으로 추대하기로 의결하였다.



▲98년 9월 29일 성시신문운영위원회의 장면(어린이회관)

이달의 강단 · 이달의 양식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일상생활

(살전 5:12~22 윤철중 목사 설교요약)



98년 10월 1일 기독교 기관장 지도자 홀리클럽 기도모임에서 윤철중목사(중앙성결교회)설교

•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목자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밤이나 낮이나 성도의 일상생활을 보살핍니다.

구약시대에는 초림예수를 기다렸으며 신약시대에는 재림예수를 기다립니다. 만일 재림약속이 없다면 믿음생활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다스리는자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선생의 교훈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바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을 받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가르치는 자는 은혜가 더할 것입니다.

• 성도들끼리 화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화평하라 화목하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와 원수된 것(죄)을 소멸하시고 화

해 하셨습니다.

1958년 부터인가 장로교단을 시발로 분립되기 시작하여 59년부터 분열 현상이 나타났으며 성결교단은 61년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목회 초년기때 교회문제로 성결교단에서 권위있는 이성봉 목사님께 해법을 여쭈었더니 한마디로 다름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서 교회는 "불"만 있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마귀는 계속 불화케 참소하는데... 우리는 성령의 불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롬15:1)

•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세상을 보면 불가능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천국시민된 기쁨을 간직할 때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시화운동과 기독교인의 의식개혁



조남진 장로
성시화운동본부장

4천5백만 인구의 1천 2백만을 헤아리는 기독교 가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회가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기독교인의 많은 수가 관념적인 신자일뿐 생활속에서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성경은 기독교인들의 사명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관념적인 기독교인의 의식이 바뀌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의식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직하고 성실하며 부지런하고 전진한 신앙인으로 육성될때만 이루어질수 있다고 봅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생활에 있어서는 편법과 탈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행함을 봅니다. 또 어떤 교계지

도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교권싸움을 일삼고 반목과 알력으로 신문지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의 의식개혁없는 결코 이사회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모든 운동은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로 확산되어 나갈때 성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의식개혁운동은 개인 의식의 변화가 선결문제이며 적게는 가정으로부터 직장, 교회등의 공동체로 변화의 물결이 번져 나갈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2년 이후 춘천을 중심으로 시작된 춘천성시화운동은 기독교인의 의식개혁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 교회 모두가 새롭게 바뀌어 진정으로 살기좋은 사회화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부지런한 사람들이 이끌어 가는 도시를 이룩해 보자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기독교인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에의해 성세가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고 실생활에 적용해 간다면 반드시 이 운동은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운동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아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성시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것일까



정하영 목사
대광장로교회 담임

춘천 복음화를 위해서는 성시화운동과 함께 성령운동을 병행하여 먼저 믿는 춘천지역의 온 성도들이 다락방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처럼 모두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역사가 있어야 할줄안다. 왜냐하면 기도가 없는 곳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한 예로 성령의 역사가 있기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수있다. 성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그리스도께서는 12 제자를 택하여 3년동안 특별교육을 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모습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이 너무나도 무능하고 나약했던 것이다. 가장 똑똑했다는 유다는 영원한 배신자가 되었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의 경우는 3번씩이나 반복해서 예수를 부인하는 비겁하고 나약함을 보여주다가 하변 도마는 의심이 너무 많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확인하기 전에

는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옛직업으로 돌아가 갈릴리 바다에 고기잡으려고 나갔던 모습을 보아 알 수 있다.

이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교사로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잘 가르칠 스승이 있겠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특별교육을 받았음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있기전에는 아무도 변화된 사람이 없었다. 그럼으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육은 아무리 훌륭한 스승의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묵음결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때문에 승천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부하신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된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성령께서는 기도가 없는곳에 예수가 없는것에 말씀이 없는곳에 믿음이 없는곳에 순종이 없는곳에 예배가 없는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이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악령의 역사일 것이다.

그럼으로 성시화운동을 참으로 원한다면 춘천지역 모든 성도들이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지체가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충만으로 거듭나 목숨을 내밀기는 증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때 춘천 성시화가 현실로 실현될 것을 확신한다.

교계뉴스

동정



윤철중 목사
(중앙성결교회)
98.10.1 world vision(구 선명회)대회의실에서

기관장 지도자 홀리클럽 기도모임 참석자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였으며 성시화운동에 공이 많은 이용규장로(영광한의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김주환 목사(순복음춘천교회)는 10월5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달라스 순복음교회등

3개교회에서 부흥회 인도차 출국하였다.



유근찬 교수(기관장지도자 기도모임 총무)는 10월7일부터 1주일간 중국에

서 열리는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차 출국하였다.



김광국 목사(성광장로교회) 10월1일 2일 광성기도원에서 실시한

예장통합측 남시찰 교역자 성경공부 및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차관식 목사(제일감리교회)는 9월28일 경주 고수부지 운동장에서 개최된 전국

목원대학교 신학대학 동문 체육대회에 참석하였다.



조종환 목사(정립장로교회)는 9월28일 전국 직장선교사협의회

의회 창립총회(서울종교교회)에 참석했으며 협동총무로 선출되었다.



배계섭 집사(춘천시장) 10월 20일 오전 11시 춘천중앙성결교회

(윤철중목사)에서 장로 장립을 받는다. 이제 그는 장로시장이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시민의 봉사자가 될 것이며 춘천성시화운동에도 큰힘이 될 것이다.



조은제 장로(베드로성령의파)와 서울 비전 126기도모임 목사

등 4명은 춘천 성시화운동본부 기관장 지도자 기도모임과 자매결연한 인도 비하르주 파트나시를 방문 10월18

일부터 25일까지 현지학생 200명과 사역자 1000명(목사, 전도사)에게 숙식제공(400만원)하면서 세미나를 개최한다(성령세례, 헌신, 전도, 기도운동에 대하여)



임신영 목사(동부장로교회)는 10월14일~15일

고한중앙교회에서 열리는 강연회에 총대장으로 김홍규, 박상만, 이춘석, 황복남과 함께 참석하였다.

본사방문

- 김기태 장로(중앙감리교회) 아산리소 춘천지사장방문(화본1집)
- 신종철 집사는 세계복음화협의회 평신도회장(유성건설 대표)방문
- 임창호 교수는 서울장로회신학교 춘천분교장(교회음악과)방문
- 최석원 목사(충인성결교회)방문
- 김정하 장로(성광장로교회)방문
- 김중수 토요회장 방문
- 김진용 토요회 총무방문
- 지영철 대표(대한 인쇄소)방문
- 이창근 강원도 공무원 교육원 전서무과장 방문
- 위태식장로 감리교 남지방 남선교회 연합회장방문
- 황병찬장사(동원감리교회)방문

- 성전건축을 위한 기도회를 구역별로 계속 실시하고 있다.
9월28일(9구역) 29일(10구역) 30일(11구역) 10월1일(12구역) 2일(13구역) 3일(14구역)

- 권사 수련회를 19일 20일 의암가든에서 갖는다.

- 춘천 신림교회 개척예배를 17일 오후 6시 춘천경찰서 옆 신림빌딩 3층에서 드렸다.

제일 감리교회 차관식 목사

- 모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10월 25일을 '98 총동원 주일로 지키기로 하였다.

소양 성결교회 이원호 목사

- 갈릴리 국악선교단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원 동문협의회 뉴욕세미나 초청으로 10월 5일 출국하였으며 17일 귀국 예정이다.
- 설교테이프 판매 - 출판부에서 3부에배후에 설교 Tape를 판매합니다.

춘천 중앙감리교회 권오서 목사

- 10월 26일 오전 11시 춘천시 퇴계동 212번지 새 성전건축 부지에서 「창립1백주년 기념성전」 건축 기공식을 가졌다. 새 성전은 2,000년 4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 교회창립 96주년 기념 큰잔치가 10월 25일 강원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다.

석사 감리교회 임택창 목사

- 10월 9일 교도소 추계체육대회에 전교인 참석 격려하였다.
- 성전건축을 위한 여선교회 철야기도회를 전교인 대상으로 매일저녁 실시하고 있다.

신성감리교회 김창수 목사

- 50일 특별새벽기도회 - 10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가정을 위하여" 전교인 기도계획이다.
- 동부연회 청장년 선교연합회가 주관하는 「제4회 동부성가제」가 11월7일 오후7시 원주 제일교회에서 개최되며 출전준비를 위한 성가연습이 있다.
- 성경퀴즈대회가 10월 25일 제1청년회 주관으로 주일 저녁 예배후에 있을 계획이다.(로마서, 다니엘서)
- 남궁역선생 기념 봉헌예배가 동부연회 주최로 10월 12일 11시에 흥천 한서교회에서 있었다.

성광장로교회 김광국 목사

- 춘천기독교연합회 총회 개척 - 98년 10월 23일 오전11시 기독교연합회가 본교회당에서 열리며 목회자들과 교계지도자들의 영접준비를 위해 은교인들이 정성을 모으고 있다.

CCC강원지부 이갑용 간사

- Home coming day - 98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흩어져있던 춘천 나사렛 순장 간사 150여명이 춘천 C.C.C 회관에 모여 구국 기도와 졸업생(나사렛)들과 제학생들의 교제가 있다.

행사

남춘천 감리교회 유진형 목사

- 야외대집방을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특별로 "중도"에서 실시하였다.
- 기도부흥회를 10월 9일 10일 이영훈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밤과 낮 집회 철야집회를 가졌다.
- 제10회 전교인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12일 팔미교회에서 지방 여선교회가 주최하는 바자회를 열었다.
- 연합성가제 준비 - 11월 14일 World vision(선명회) 연합성가제 출전 성가연습을 하기로 했다.

순복음 춘천교회 김주환 목사

- 심령대부흥회 -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부흥회를 열었다.
- 가중선교회별로 10월 첫주부터 5가정을 선정하여 구제 봉사하기로 하였다.

중앙 성결교회 윤철중 목사

- 98년 10월 20일 오전 11시 본교회대예배실에서 장로장립(명예장로 명예권사 추대 권사취임)에 배가 있다. 이날 장로 장립 대상자는 김재명 김진삼 남성우 배계섭 서문용 정지수 염창현 모두 7명이다.
- 교회부흥과 신앙성숙을 위한 365일 연속기도회를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10월12일부터 18일까지는 조승남, 서혜순, 유정열, 김양순, 강인숙, 박세균, 이석순 성도가 차례로 기도드린다.

- 금년도 3차 특별새벽기도회가 10월 26일부터 11월 22일까지 "요단강은 지금도 갈라진다"는 주제로 실시된다.

동부 장로교회 임신영 목사

- 9월 27일 노숙자와 무의탁 노인들을 위하여 사랑의 헌금을 실시하였다.
- 직장기독인 정오예배가 9월 29일 본당에서 있었으며 10월달 예배는 27일에 드릴 예정이다.

직장신앙운동

만물을 맡겨 주신 하나님



명위식 목사
예수사랑교회담임
강원대신우회지도목사
성시신문 운영위원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맡겨주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유형, 무형의 만물을 사용해서 무엇을 만들어 내는가는 우리들의 소중한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만물을 주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

성을 담은 온전한 인격자로 발전해 가는 일이나 귀중한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만물을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의 모습과 성품을 나타내고 보여주어야 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기독교인의 훈련장이요 교육장으로 주셨으며 복음의 진리와 영적으로 성장한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훈련장으로 맡기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천국시민으로서 모습을 갖추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를 칠홍같이 어둡고 험난한 홍해바다와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에 직면하게 하시며, 거칠고 난폭한 자들을 불이심으로 시련과 역경을 더

해 주십니다. 이는 주님의 자녀들을 정금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시련과 역경을 어떠한 자세로 이겨내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견뎌내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체험한 이상으로 그 믿음이 연단되어 강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날마다 선한 행실로 빛을 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시간, 지금 이순간은 평생에 다시 오지 않는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고 주의 나라에 합당한 인격과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물을 사용하는 지혜와 은사를 간구합니다.

성경말씀은 돈은 일만약의 뿌리가 된다고 물욕의 절제를

교훈하였으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만물의 소유에 대한 겸손과 중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만물의 신랄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여 그것들을 보호하고 서로 나누며 창

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삶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곧 성시화의 사역일 것입니다.

4만 5천여 춘천지역 성도들이 각자의 역량을 결집시켜 성시화되어가는 삶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98년 10월1일 직장선교연합회 현판식 모습

(사진 조남진장로·조충환목사·김영명회장)

춘천 직장선교 연합회는 90년 4월 17일 창립하였으며 8년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았다. 그러나 사무실이 마련되지 않아 회장의 근무지를 따라 이동하는 형편으로 불편을 겪어왔다. World vision(한국선명회)과 성시화운동본부의 지원을 받아 간판을 달게 되었다. 이제 자기문패를 달고 어깨를 펴수 있는 직장선교 연합회가 되었다.

농사 지으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농협기독교 선교회



허 선 장로
농협강원지역본부장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직업은 바로 농업이다. 사람의 수고로만 해결할 수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다. 인간의 수고는 부분적일뿐 하나님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거쳐 해주시므로 우리가 토지의 소산물을 얻게 되는 것이다. 전 농림부장관 정시채 장로께서 농사는 사람이 40%정도 짓고 나머지 60%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 고백처럼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상상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

고 계신 것이다.

이러한 농사짓는 일과 연관되어 생산자 단위로 조직된 농협은 그 산업자체가 하나님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강원농협 지역본부의 이영규장로, 홍세표장로, 박영회장로 등 농협 기독교인들이 춘천지역 농협선교회를 조직하고 10년동안 농촌, 농협복음화와 매년 풍년농사를 위하여 하나님앞에 기도하고 있다.

농협선교회에 참여하는 회원수는 약 30명정도로 매월 월례회를 통하여 선교의 사명을 점검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으며 매년 전국단위로 개최되는 농촌 농협 복음화대회에 회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여 직장내의 선교사로서 믿음과 은혜를 재충전하고 있다.

94년에는 강원도 농협기독교인들이 함께 농협 농촌복음화 대회를 개최하여 복음화의 불길을 일으켰으며 작년에는 연속적인 풍년에 감사하여 전국직장선교 연합회장과 춘천 지역 기독교 기관 지도자를 초청 풍년감사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또한 금년 4월 강원농협 지역본부장으로 취임한 허선 본부장은 장로로 사랑으로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여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좀더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주고 소득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장로본부장 취임을 계기로 농협선교회가 과거보다 더욱 활기찬 움직임 속에서 매주 화요일에는 1시간 먼저 출근하여 기도회를 가지고 있으며 오는 10월22일(목) 저녁7시에는 많은 기상이변 가운데서도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춘천의 기독교 기관장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추수감사예배를 드리기로 하였다.

농협선교회회원들은 하나님을 농사의 최고 경영자요 주인으로 생각하고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농협, 농촌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말은일을 열심히 다하고 있다.

우리교장 살리는 성시화 운동되길



조규병 장로
강원도의회 의원
도의회 기독교인 연합회장

작금의 세태를 바라보면 걱정들이 대단하다. IMF한파가 채 가시기도 전인데도 유명 백화점에서 외국의 유명브랜드를 찾는 가정주부들, 밤늦게 강남의 유흥가를 배회하고 있는 청소년들, 공무원들의 수억대 뇌물사건, 끝이 보이지 않는 정치인들의 정파싸움, 교통질서와 공중질서라는 말은 아예 염두에도 없는 중고등학생들.

어느것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한숨만 짓고 있다. 때문에 「조선사람은 어찌니 염전은 할 수 없다」느니 하는 자조적인 말이 나오고 심지어 「한국은 헤쳐보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요즘 세태를 볼때 믿을 곳이 한곳도 없다는 말인 듯 싶다. 누군가가 나서서 목적없이 흠

러가고 있는 이 시대의 잘못된 향로를 바꾸어 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시대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빛과 소금이란 말을 입으로만 중얼거릴 것이 아니라 실천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누가 나서겠는가? 기독교인 하나하나가 이 나라를 건지는 청병이 되어야 한다. 우리국민 4천만명중 기독교인이 1천만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사회를 위해 깨어 일어난다면 제2의 한국재건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을 위해 해방이후 오늘까지 한반도 구석구석에 교회를 세워 놓으셨는지 모른다.

이때에 춘천을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기치를 든 성시화 운동이야말로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한다.

모처럼 시작된 이 운동이 작게는 한 도시를 죄와 악에서 구원하는 사업이 되기 바라며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에 세워지는 계기가 되길 기도한다.

춘천 성시화운동본부 조남진 본부장을 비롯한 임원 및 전 회원들의 건투를 빈다.

세계 기독교 뉴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전세계의 부흥소식 ②



기정희 집사
(춘천의료원
신경정신과장)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2장 28절)

전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흥수, 해일, 지진과 기근, 난리와 난리의 소문, 또한 복미와

남미, 아프리카, 유럽, 심지어 중동과 인도 등 모슬렘과 힌두권에서조차 들려오는 놀라운 부흥의 소식은 과연 우리가 늦은 비, 마지막 대추수의 역사 가운데 돌아가고 있음을 실감케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지역의 부흥뿐 아니라 나이를 초월하여 모든 세대, 특히 어린이들이 부흥의 일선에서 놀라게 쓰임받고 있는 소식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할 세대를 친히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어른들이 깨닫고 민감하게 순종하여 섬기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카리스마 9월호에 이에 대한 특집이 실렸기에 여기 소개하고 우리 어른들의 남은 경험에 따른 선입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지연시키는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어린이 예배

1995년 '아버지의 날'부터 매일 밤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회개와 갱신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미국 플로리다 주 펜사콜라 교회에서는 300여명의 어린이들이 모여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8세에서 12세까지의 찬양팀이 인도를 하고 있다.

어른들의 예배와 동일한 회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경배, 순복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기뻐함, 헌신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미국 미네소타 주의 Joy Christian Center의 Harper 목사님은 지난 10년간 어린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예배 안내, 찬양과 경배, 말씀 증거, 병자들을 위한 기도 등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는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코스타리카 산 호세 오아시스 교회에서는 1995년 부흥

이 시작된 이래 100여명이던 주일학교가 지금 1200명으로 부흥하였으며, 4시간에서 5시간 드려지는 예배에 12살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은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갈급함과 그들의 생애가 변화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인해 집중하여 진지하게 참여하고 있다.

② 어린이들의 중보 기도

1997년 6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GCOWE대회에서는 3살에서 16살까지의 어린이 100여명이 모여서 중보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아공화국의 죄악, 특히 폭력에 대해 어른들에게만 기도하도록 맡기지 말고 어린이들이 중보기도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한국식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자는 17세 리더의 제안에 100여명의 어린이들은 일제히 엎드려 울부짖으면서 죄악에 대해 슬퍼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무너진 데를 막아 서는' 중보 기도를 하였다.

이때, 이들이 기도하던 텐트

가 흔들리기 시작하며 강한 바람이 텐트 안에 불었다.

A.D. 2000 운동의 어린이분과에서 주도하는 Children's Global Prayer Movement는 지금 미국,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영국, 우크라이나, 프랑스, 베네주엘라 등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100만명의 어린이들을 중보 기도의 군사로 일으키는 것이 목표였는데 1998년 8월 현재 100만명을 훨씬 초과했고 또 급성장하고 있다.

역 라마단 기도 중, 한 어린이는 환상으로 모슬렘 어린이를 보았는데 곧 이어 "그들은 나를 모른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그 아이는 울며 모슬렘 어린이들을 위해 중보하였다.

미국 덴버의 Josh라는 고교생은 1997년 12월 미국의 모든 고등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우는 vision을 받고 캠페인을 시작하여 벌써 10개의 모임을 세웠다.

-다음호 계속-

비전 삼진법 (여호수아서 14:6~15)



김동성 목사
분당 불꽃 감리교회

살에는 세 가지 단계가 존재한다. 첫째는 기본 단계인 보는 단계이다.

누구든지 이 단계의 삶을 살 수 있다. 왜냐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보는 단계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안력의 에민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보는 단계를 통한 믿음의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시사적으로 에민한 사람이 있지만, 기회 포착에는 눈이 어두운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단계는 믿음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말하는 단계이다. 보는 것은 믿음의 기회이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언어이다. 이 단계는 우리의 시각을 사로잡는 그것에 헌신할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때이다. 성경에는 언어적 신앙을 보여주는 많은 예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 하시되, "내가 만일 네임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구원을 얻으리라" (롬10:9)

셋째로는 취하는 단계이다. 이때에는 믿음을 행동화한다. 이것은 하나 한 말 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비전 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있는 없어서는 안될 행동이다.

누구나 첫단계인 시작적 단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만유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나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점점 동행하는 사람이 적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마침내 취하는 단계, 즉 실행의 단계에 이르면 당시 자신은 소수의 엘리트 첨단의 일원이 된다. 다른 사람들은 믿음의 기회와 실행의 원리를 놓쳐버린 것이다.

갈렐의 모본

성경에는 취하는 단계까지 도달한 인물의 본보기가 있는데 곧 갈렐이다.

우리가 선택한 갈렐의 이야기는 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좋은 소식을 가져온 일이 있은지 45년이 지난 후이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향해 진행하는 가운데 있다.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렐은 지도층에 위치한 장로들에게 말한다. "내 나이 사십세에 여호와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7

절) 이것은 시작적 단계이다. 그는 가나안 땅을 보았다. 갈렐은 계속 말한다.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다고"(7절)이것은 언어적 단계이다.

이제 비전이 갈렐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의 두 눈을 통해 머리 속으로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까지도 침투해왔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 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와 말씀하신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12절) 여호수아는 45년이나 지난 자신의 비전에 현신하는 갈렐을 보고, 요구한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 갈렐은 그가 보고 말한 것을 취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는 갈렐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비전이 실현되기 이전에 이 세 단계를 거쳤던 사람들이다.

1. 보는 단계-믿음의 기회

갈렐. 우리는 이미 잠깐 갈렐의 예를 보았지만 여기서는 갈렐의 비전이 그의 성취에 있어 어떤 구실을 했는지 보고자 한다. 먼저, 갈렐은 비전 덕분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여호수아 14:7에서, 그는 자신이 가나안 땅을 보았을 때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모세에게 말한다. 그의 비전은 갈렐에서 확신을 주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의 비전을 쫓아 다른 정탐꾼과 반하여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다.

또 그는 비전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지만, 갈렐은 말한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수 14:8)왜? 그는 비전을 가졌기 때문이다.

셋째로, 갈렐은 비전으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우리는 비타민B 혹은 비타민C에 대해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지만, 가장 좋은 비타민은 비타민V, 즉 비타민 비전(vision)이다. 사람이 비타민V를 섭취하면 매일 생기가 회복된다. 목적이 있는 한 꿈이 있는 한 그리고 비전이 있는 한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나이 85세에 갈렐은 그 땅을 위해 싸울 준비가 완료되었다. 그의 기력은 쇠하지 않았다. 왜? 비타민V,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갈렐은 비전 덕분에 그 땅을 얻게 되었다. 마침내 그는 그 땅을 소유했다. 무엇보다도 우선 그 땅을 보았었기 때문이다.

나는 자주 인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만난다. 그러나 그들을 내리 누르는 것은 진정 그들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문제는 비전의 결여이다. 거대한 비전은 어떠한 문제라도 극복하게 하지만 비전이 작거나 아예 없을 경우엔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당신의 뒷다리를 걸고, 당신이 마땅히 되어야 할 것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사진으로 본 성시화운동사



96년 6월 27일 직장선교연합회 창립6주년 예배와 찬양경연대회(신성감리교회)



직장선교연합회장(김남철장로)의 찬양경연상 모습



96년 7월 23일 홀리클럽 예배와 회원 환영 장면



96년 8월 2일 전웅태장로(김사장)관에서 기관장지도자 기도모임



전가화 목사 초청 기관장지도자 신앙세미나(세종호텔 소양홀)



춘천기관장지도자들의 성시주간 행사 1차 준비모임(법원장실)



96년 8월 30일 춘천 성시화 주간 목회자 간담회 모습



96년 9월 6일 기관장 지도자 헌정방문 예배모습

사진으로 본 성시화운동사



한전신우회원 부인들의 찬양모습



96년 9월 13일 홍천을 오안초등학교(교장 이학규장로)방문 기관장지도자 기도모임 일꾼들



96년 9월 17일 성시본부 창립준비모임을 전웅태 검사장 집무실에서 가졌다.



96년 9월 30일 성시주간 첫날 새벽기도회를 동원감리교회에서 가졌으며 1주일동안 각 교회를 순회하여 기도의 단을 쌓았다.



성시주간 첫날 성시토론회를 갖고 역사적 학문적 근거와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준천의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연합회를 창립하고 연합회장(임택창목사) 취임에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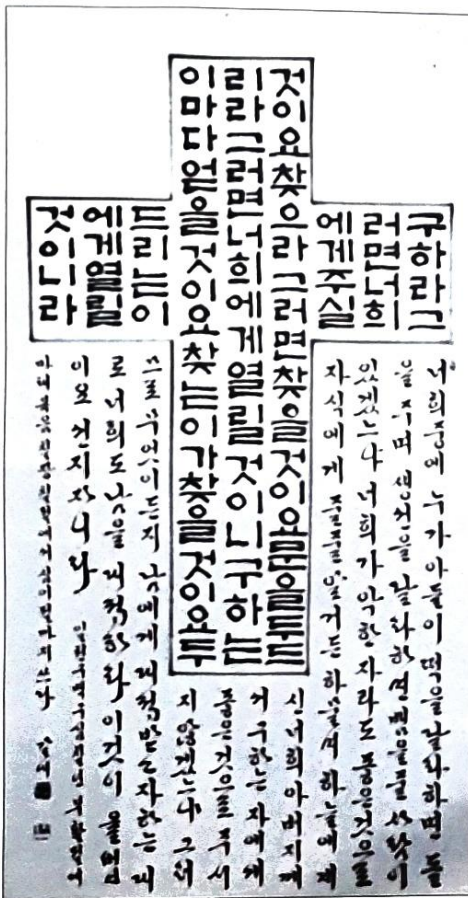


96년10월1일 성시주간에 역사적인 성시본부사무실현판식을 마치고 후원금(1천만원)기증장면



96년10월4일 성시주간 집회에 참석한 기관장과 성도들(감원대 백령문화회관)

기독교문화



성명 : 이만진(李萬眞) 아호 : 갈 내
 ○교직 42년 퇴임(교감)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입선3회, 특선2회 초대 작가
 ○대한민국 서예고시 입선, 특선, 평가위원, 초대 작가
 ○대한민국 서예대전 입선3회
 ○대한민국 현대서에 입선3회, 특선1회
 ○강원서예대전 초대작가(현. 운영위원장)
 ○강원도 미술대전, 교원미전 초대작가
 ○한국미협 원로작가 초대전, 지방작가초대전
 ○한일교류전, 환동해권 미술작품전
 ○모스크바 국제예술관에 한글작품 2점 소장
 ○춘천성시화 기독교미술인회 부위원장(현)
 ○춘천예우회 회장(현)
 ○강원서예상, 국제예술상, 국민훈장 모란장



‘인생’이란 큰 강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 우리 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인생’이란 십자가가 버겁기만 합니다.
 저는 그것은 天刑이라 부릅니다.
 천형은 때로 우리를 옥죄어 깊은 구렁에도 던지고
 때로는 가시덩굴 불속에 던져 피를 철철 흘리게도 합니다.
 철철 흘리는 피보다 더 아픈 것은
 보이지 않는 죄의 사슬입니다.
 어둠 곳곳에서 순간순간 칼날처럼 번득이는
 죄의 언어, 죄의 난무.
 이 세상 누구도
 밝은 빛 속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더더욱 모르는 우매한 어둠속에서
 우매한 우리들은
 “인생”이란 길고 큰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천지만사를 주관하시는 큰 분이시여!
 그 넓고 깊은 해안으로
 우리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사탄의 허 스스로 잘라 눈 뜨게 하옵소서.
 무거운 형틀 목에 거시고
 골고다의 언덕에서 우리 죄 대신하신 주님,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이 세상 빛나옵니다.
 天刑, 天型, 하늘의 형틀 벗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쯤에서

〈시인 약력〉

- 강원도 평창군 봉평 출생
- 경희대학교 국문과 및 동대학원 졸업
- 1976년 「월간문학」 신인작품상으로 등단
- 제3회 윤동주 문학상 수상, 제29회 강원도 文 化상 수상
- 시집 : 「종점에서」(1987), 「시지포스의 돌」(1980), 「귀 하나만 열어놓고」(1987), 「네 살던 날의 흔적」(1989), 「점 하나로 남기고 싶다」(1990), 「그대에게로 가는 편지」(1994), 「난 자꾸 눈물이 난다」(1995) 상재.
- 수필집 : 「그래도 사랑이여」등이 있음.



시인 이영춘
 춘천중앙성결교회
 춘천발산중학교 교감



소년소녀합창단 연주회

춘천 CBS 소년소녀합창단은 97년 12월 창단하여 잠실체육관에서 개최된 98년 서울세계 복음화 대성회와 평화감리교회등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렸으며 이제 창단연주회를 갖게 되었다.

일 시 : 98년 11월 7일(토) 오후 5시

장 소 : 춘천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연주곡 : 내영혼이 하늘향해 등 7곡, 외국민속독텐스 4곡, 가족뮤지컬 “우리집의 영웅들”

단 장 : 신종철 안수집사

지 휘 : 박병희 교수

반 주 : 김미인 집사

성시운동 기록관리



이학규 정로
춘천 기독교기관장
지도자 기도모임 대표
강원지방 교육자 선교회장

기도모임과 성시화운동

춘천성시화 운동은 1972년에 태동하였다.

당시 춘천에서 개최된 전국 C.C.C 선교대회에 김준곤목사에 의해 제창된 후 몇분의 목회자와 평신도운동에 의해 명맥을 유지하면서 각 교회별 기도운동, 교단별 연합운동으로 체육관 연합선교대회, 평신도성경구락부의 지속적인 성시화 기도동, 산발적 운동으로는 전개되었지만 체계적 가시적 운동으로는 활발히 전개되지 못할 실정이었다.

그때 C.C.C선교대회에 참가해서 성시화운동의 불씨를 받아가지고간 사람중에 한사람 춘천대 천사가 1991. 7. 31 춘천지방경찰청 차장검사로 부임하면서 부터 춘천성시화운동이 본격적으로 다시 가동하게 되었다.

성시화운동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연합하고,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연합하고, 선교단체들이 잘 연합되고, 기독교관청들과 사회지도급인사들이 단합하여 후원할때 종합적 입체적 지속적인 운동으로 성시화의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믿는다.

춘천성시화의 비전을 가진 몇분의 기관장들이 전용대 차장검사가 중심이 되어 매주 화요일 저녁 차장검사 공관에 모여서 성시화를 위해 기도하고 성경공부를 하게 된 것이 화요기관장 기도모임의 시작이었다.

당시 회원으로는 전용대 천사(차장검사), 김기수 검사장, 성기방 집사(강원도부지사), 문선재 목사(강원대학교 교무처장), 배계섭 춘천시장, 김기수 장로(한전 강원지사장), 김중혁 한국은행 춘천지점장, 임무룡 강원도 내무국장, 조남진 장로(강원일보사 전무), 조충환 장로(춘천지역직장선교연합회장), 이학규 장로(춘천지역교육자선교회장, 금병국교장), 강원도 경찰국 경비과장 등

이었다. 이 기도모임에 말씀을 증거해 주신 분으로는 처음 몇 달은 인천에서 온 목사가 매주 오셔서 수고해 주셨고 그 후에는 춘천 성산순복음교회 최일수 목사가 지도해 주셨으며 때로는 특별강사를 모시기도 하였다. 후에 이 기도모임의 명칭을 바울선교회라고 일컫게 되었다. 바울선교회가 직접 성시화운동을 기획하고 목회자들과 의논하고 추진하기도 하였지만, 기관장 기도모임이 후원자가 되어 직장선교연합회를 활성화 시켰고 직장선교연합회로 성시화운동의 최전선에 서서 열심히 성시화운동을 계획하고 추진하게 하였다.

1992. 8. 6 전용대 차장검사가 인천으로 전근되면서 이 기도모임이 주축할 뻔 하였으나 김중혁 한국은행 지점장 공관에서 계속 모였으며 김지점장이 서울 본부로 영전한 후부터 문선재 강원대학교 총장 공관에서 모임의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모였는데 이 때는 보다 체계적으로 성시화운동의 뿌리를 재조명하고 구체화 하려는 노력도 기울여 보았다.

이때는 신성균 목사(강원대학교 영문학 교수)가 매주일 말씀을 인도해 주셨고 그후 생명수 감리교회 김동성 목사도 기도모임을 뜨겁게 인도해 주었다.

이 바울선교회는 문선재 총장(목사) 부부와 조남진 장로, 성기방 집사(강원도부지사), 이용규 장로(영광한의원원장), 오말선 원장(춘천문태소리선교원장), 유근창 교수(강원대학교농과대학 학장) 부부, 최종문 집사(강원은행장), 최문길 장로(강원도임업시험장장), 이학규 장로 부부들이 열심히 모였으며 박상진 권사(후평우체국장), 김기태 장로(도교육위원회회의과장), 최동우 권사(도 농촌진흥청과장)들도 함께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성시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다가 문선재 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춘천을 떠나자 잠시모임을 쉬고 있을 때였다. 춘천을 사랑하시는 주님께 서 1995. 9. 20 전용대 장로를 춘천지점 검사장으로 취임하게 하심으로 춘천 기독교 기관장 기도모임이 다시 활성화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성시화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전용대장로가 취임하자 곧 검사장공관에서 매주 목요일에 기관장기도모임예배를 드렸으며 이는 춘천성시화운동의 재 점화의 계기로서 회원들도 새로운 모습으로 구성되었다.

전용대 장로(춘천지점 검사장), 양인평 장로(춘천지방법원장), 이범찬 집사(안기부강원도지부장), 조남진 장로, 유수열 집사(춘천MBC사장), 김용환 권사(CBS춘천방송본부장), 최종문 집사(강원은행사장), 권재원 집사(한국전

력 강원지사장), 이용민 집사(강원공사 사장), 윤종국 장로(강원도의회의장), 김형재 장로(강원도의회기독교의협의 회장), 배계섭 집사(춘천시장), 이상표 목사(군선교 담당목사, 성시화운동본부총무), 이태수 권사(지방법원판사), 지희준 장로(강원체육고 교장), 조충환 장로(도의회전문위원), 백기만 장로(도경, 춘천직장선교연합회장), 이창룡 장로(춘천장로회연합회장), 이경준 목사(선명회춘천복지관장), 김기태 장로(삼척도서관장), 최현섭 장로(강대사범대학장), 김진현 장로(강대법과대학장), 신길호 집사(강대대학생장), 박한중 장로(도경찰청정무과장), 조한진 장로(도경찰청교통과장), 이용규 장로(영광한의원원장), 조은재 장로(베드로정형의과병원장), 김영명 집사(도산림국, 기도모임홍보위원), 이학규 장로(교육자선교회장, 오안초교장)들이 모였고 이 모임의 대표로 전용대 장로가 추대됐다.

이 기도모임은 시내 목사님들을 초청하여 은혜도 받고 성시화운동의 결실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드렸고 협조도 요청하는등 목회자와 기관장들이 유대를 돈독히 하는 일을 하였다.

여러 교회를 순방하면서 그 교회 교우들과 지역사회 기관장, 사회유지들과 기관장들이 유대를 강화하고 연합하여 예배를 드린 일도 성시화 분위기를 조성 위해 유익한 일이었다.

기관장 기도모임에서는 성시화운동의 효율화를 위하여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연합하여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면 효과적일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춘천기독교연합회 창립을 발기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96. 9. 12 석사감리교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회장에 임택창 목사를 선임하게 되었다.

같은해 10월에는 춘천성시화운동추진위원회 창립을 소양강감리교회에서 김선도 감독(서울 광림감리교회 담임목사)를 특별강사로 초청한 창립예배를 드린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하는 한편 성시화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기독교연합회장을 당면적 회장으로 하여 임택창 목사를 초대 대표회장으로 추대하였다. 초대 본부장에는 이상표 목사를 선임하고 사무간사를 임용하고 춘천선명회복지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헌편식을 가짐으로 춘천성시화 운동은 제2기에 접어들었으며 가시적인 운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기관장기도모임을 통해 비전 126 춘천성시화 중보기도모임이 시작 되었으며 이 운동은 양인평 장로를 통해 더욱

뜨거운 기도 모임으로 교회 순방예배로 확산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전용대 장로(최효자 권사)는 성시화운동은 건전한 가정세우기 운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뜻을 품고 행복한 가정생활 세미나를 시작하여 베드로병원에서, 제일감리교회당에서, 검사장공관에서 행복한 새 가정 만들기 운동을 전개한것도 기관장 기도모임의 사역이었다.

전용대 장로, 양인평 장로, 이범찬 집사들은 이지역 복음 전도를 위해 보내 주신 천국대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교회와 학교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가까운 홍천지역 성시화를 위해서도 멀다하지 않고 밤과 새벽시간을 내서 찾아갔다.

홀리클럽도 만들어 춘천에 유지들을 한 사람의 주님개로 안내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

전용대 장로가 청주지점 검사장으로 청주 성시화를 위한 사명을 받고 영전한 후 법원장 양인평 장로가 후임 대표로 기도모임을 활성화시켰으며 양인평 장로 역시 대전지방 법원장으로 대전 성시화를 위해 영전된 후

이범찬 집사가 기관장 기도모임의 대표로 여러교회 순방예배를 주선하였으며 시내 교회는 물론, 도내 각 교회와 기관, 각종 세미나와 연수회에 출강하여 간증하는등 성시화 운동을 확산시키는 일을 위해 헌신하였다.

이범찬 집사는 때때로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생길때면 그가 받은 특유의 은사인 실패주사로 조화롭게 풀어주는 역할을 잘 하였다.

성시화 운동본부가 선명회 복지관에 들어온 후부터는 기독교기관장, 지도자기도모임으로 회명을 고치고 모든 선교단체들과 장로와 지도자들이 선명회 복지관에서 함께 모였으며 98년에는 홀리클럽회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임이 되었다.

기독교기관장 기도 모임으로 시작된 이 모임은 성시화를 위한 모임이었으며 성시화 운동 그자체였다.

그러나, 교회와 목회자의 동참없는 성시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목회자들이 직접 나서서 하기 힘든 부분들을 기도하며 성시화를 위해 봉사할 수 있기를 기도할 따름이다. 온 교회들이 잘 연합하고 힘을 합쳐 춘천성시화를 성취할 그 날을 기다리며...

오, 주님! 주님의 성시화의 뜻을 속히 이루어 주소서. 아-멘

석정갈비



* 대형 주차장 완비
* 차량출장항시대기

동면 상점리
석정 갈비
동면 저수지
한림 전문대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암 1리 하 TEL. (036) 252-5221, 251-0287

태백관 강원대학 태백관 종가집

안심스테이크 10,000원	비프가스 6,000원	우거지갈비탕 3,000원
돈가스 4,000원	한정식 6,000원	양송이볶음밥 4,000원

* 한식부페(수, 목) - 4,000원 행사 주문부페합니다.
고객을 위한 편리, 맛과 영양, 위생을 책임집니다.
「주차장완비 무료주차증발급」

대표 정을섭

춘천시 효자2동192-1 강원대학구내 강원은행지점 3층전화(0361)256-7271

시민광장 · 시민과 함께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운동으로 어둠을 밝히며

WORLD VISION(한국선명회) 춘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1988년부터 춘천지역의 제가 무의탁노인들을 비롯한 요보호대상자들에 대한 후원 결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92년 재가복지봉사센터를 개소한 이래 춘천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생계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93년에는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춘천의 교회, 단체등으로부터 자원봉사자를 지원받아 복지관 및 교회등에서 사랑의 도시락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8년 3월부터는 춘천시 11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협조로 보건원이 직접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여 도시락을 전달하고 건강상태를 통한 의료문제까지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지역사회발전에 한층 더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도시락 대상자는 춘천지역 각 읍면동사무소와 사회복지전문요원(사회협당)의 추천을 받은 생활보호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에서 생활에 곤란을 겪고 음식조리

가 불가능한 자를 선별하여 주 3회 밀반찬(매회 70회분)을 제공함으로 균형잡힌 영양섭취와 무의탁 노인들의 고독감을 해소하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는 정서적 안정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WORLD VISION은 사랑의 도시락 전달 차원에서 한결을 더 나아가 대상자들의 다양한 욕구(목욕, 미용, 세탁 등) 청결위생서비스, 한방진료 병원동행 등 의료서비스, 이사서비스를 파악한후, 재가복지봉사센터의 협조를 받아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랑의 도시락(밀반찬)나누기 자원봉사단체와 전달지역은

【월요일 봉사팀】

남춘천감리교회, 중앙성결교회, 효자1동 고부회, 후평장

로교회, 전달지역은 퇴계동, 효자1동, 사우동, 은의동, 동산면, 사북지암리, 신동, 용산

【수요일 봉사팀】

남춘천감리교회, 동래면 부녀회, 서면적십자봉사회, 소양성결교회, 중앙감리교회, 전달지역은 신북, 광판, 남면 가정, 남산면 광판 서천, 서면당림,

【목요일 봉사팀】

신북장로교회, 신북읍부녀회, 침례교 군인 전도부, 천전감리교회, 춘천성결교회, 전달지역은 동면, 서면, 동래면 사우동, 사농동, 신남.

* 사랑의 도시락 제작, 가정배달, 사업후원 운동에 동참하실 분은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EL. 254-7244, 253-2026)



가정법률상담으로 성시화의 지름길



백명임 소장

춘천가정법률상담소

1990년 12월 3일에 개소한 저희상담소는 가난하고 법을 몰라 피해당하고 번민하는 이웃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하였다. 그중 부부간의 이혼문제로 상담해 온 사례가 전체상담의 60%이상을 차지하였는데,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외도, 폭력, 가출, 도박, 주벽, 알콜중독 등 매우 다양한 문제들이었다.

한 아주머니는 남편을 잃고 혼자 애들을 키우며 살다가 친구의 소개로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가 무일푼이어서 아주머니가 그동안 행상들을 하며 모아 온 재산으로 살림을 시작하여 7년간 살아왔으나 그는 혼인신고도 안 해주고 올해초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아주머니의 재산을 자기앞으로 해달라고 위협하는 등 슬

을 마시며 괴롭혀 도저히 살 수가 없으나 두번째 결혼마저 실패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어 아주머니는 커다란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

저희 상담소는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강인하게 살아 오신 아주머니를 격려하고, 지금의 이 상황도 아주머니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으며, 아주머니의 가치를 모르는 남편은 크게 후회할 것이라고 용기를 주었으며, 앞으로 불투명해진 미래에 대해 용기를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었다. 최악의 경우 남편이 그 여자와 혼인신고라도 하게 되면 아주머니가 침이 되는 것이니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헤어질 생각이 아니라면 혼자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혼인신고를 해 두도록 지도하였으며 아주머니 명의의 재산에 대해 남편이 손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와같이 우리의 삶은 현장은 어둡고 암울한 곳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예수님의 빛과 소금으로 변화되는 것을 통하여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 내고 참으로 살기좋은 성시화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늦가을 젊은이들과 나누는 사랑의 콘서트

이 땅의 악한 문화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청소년들을 바라보고 손가락질을 하며 혀를 찰 것은 먼저 믿는 자들의 할 일이 아니다. 이에 믿는 청소년들에게는 영적 회복과 전도와 선교의 도전을 얻는 시간이 될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에게는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음악(찬양)으로 기독교문화에 대한 편견을 깨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행사는 춘천의 청소년들이 함께 기획, 주관하는 행사로 국내 C.C.M 콘서트 최초로 뮤직비디오 상영과 공연을 함께 하며 수준있는 음악성을 가진 출연진들과 토크쇼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메시지로 믿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부담감 없이 다가갈 것이며 기독교 청소년문화의 수준을 한껏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무너지고 있다.

학원 폭력에 못이겨 자살을 택해야 하는 청소년들을 괴롭히는 것은 그들의 친구 청소년들이다. 자신들의 유흥비를 벌기 위해 부모를 구타하고 살인까지 서슴치 않는 것은 나쁜 소설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의 이야기이다. 도적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좋은 점수를 위해 친님을 하는 청소년들은 이미 양심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누군가 이들에게 "이전 아니다"라고 가르쳐야만 한다.

이들은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갈 주인들이기 때문이다.

본 콘서트는 콘서트를 위한 콘서트가 아니라 안민을 자들에게 생명을 다해 전하는 복음

을 위한 장이다. 이 콘서트를 통해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이 영접하며, 전도할 힘이 없던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그 계기로 춘천을 하나님의 성역이 되게 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젊은 사람들을 훈련 시키시고 계시다.

우리는 지금 민족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린아이들도 다이는 IMF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네 어린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이 이루어 놓은 경제제부를 누리며 편안하고 안주, 안일과 개인주의로 엉망이 되어 있다.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는 우리민족을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훈련은 어린 사람들이 철저히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지금 미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하나님

공연장소 : 춘천시민회관 / 시 간 : 11월 7일 오후 3시, 7시
입장권에매처 : 홀리캐러리, 안디옥기독서적
가 수 : 오형아, LOVE
게 스트 : 박상철 목사, 오병이어찬양단, 푸른예수위십팀

의 사람들을 훈련 시키고 계시는 것이요, 본 콘서트는 그 훈련 되어져야 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인 것이다. 본 콘서트는 그 훈련 도전의 시간이 될 것이다.

전국찬양제 출연한 강원은행 찬양단



98년 10월 10일 서울 햇빛회관 성전에서 개최된 전국직장선교연합회 찬양제에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대표로 강원은행 신우회 찬양팀이 출전하여 수많은 찬양단중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동찬양단은 지난 9월 10일 동부교회당에서 개최된 춘천지역직장선교회 찬양대회에서 우수팀으로 선발되어 전국찬양축제에 참가하게 된 것이다.

찬양단은 10명으로 구성된 남성중창단이며 (단장) 김두원 (단원) 정인용, 정철교, 이창희, 김진수, 정의섭, 김진섭, 이덕수, 박기환, 박은자이다. 이들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바쁜 공무중에도 잠을 내어 열심히 준비하여 오늘의 영광을 얻게 되었으며 회장(이길호) 총무(신용래)의 적극적인 지원 결과였다고 찬사를 보냈다.

우리의 꿈 우리의 사명 존전성시화

최초의 찬양예술제



신종철 안수집사
춘천CBS소년소녀합창단장
성시신문운영위원

기독교찬양예술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종합예술의 한마당이 이곳 춘천에서 처음으로 그 막을 올리는 날을 잊을 수 없다.

찬양과 율동 고전 무용과 현대무용 국악과 찬양 가스펠의 경매와 찬양 이는 실로 시편 기사를 우리들의 삶 한가운데서 표현하는 것이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 치며 춤추며 현악과 통소로, 제금으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지난 5월 16일 저녁 강원대학 백령회관의 넓은 공간은 1,500여명의 기독교인들로 북도에까지 가득 채워졌다.

서울과 춘천의 많은 목회자들 국내 최초의 인기 탤런트 노래하는 가수와 춤추는 무용수 각종 악기의 연주자... 이들이 하나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에 젖어들었다. 공연장은 거룩한 성소로 변하였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

는 참으로 아름다운 경경이었다.

음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마틴 루터의 말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 하셨으며 그 아름다움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만약 노래하고 춤추고 연주하는 무대위의 사람들과 객석의 마음과 표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없었다면 인간들의 한 놀이에 불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춘천에서는 처음있는 종합적인 기독교 문화 예술의 장이었으며 식육과 춘천의 수많은 기독교인, 가장 많은 인원 동원, 다양한 부문의 예술, 많은 경비, 한가정의 단독 이벤트였다는 점에서 기록을 새롭게 하였다.

금번 기독교 찬양예술제는 다시 보고 싶은 종합예술제였으며 기독교 문화예술의 우수성과 가능성을 십여년 역사적인 일이 되었다.

교회의 예술문화가 세속문화를 선도하고 지배할 수 있기까지 발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기독교찬양예술제의 준비위원장을 맡은 신종철안수집사와 기획 섭의를 담당한 조숙희 집사 이들의 꿈은 종합예술제를 통하여 교회가 일치되고 부흥되며 춘천의 성도들에게 최고의 기독교 종합예술제의 멋과 맛을 선물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날 성도들의 헌금은 전액을 어려운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는데 사용되었다.

이러한 기독교적 문화예술의 장이 계속되고 기독교인들의 삶이 예술과 같이 아름답게 변화되어 춘천도성의 성시화가 앞당겨 질수 있기를 소망한다.

성시회원 9월 후원현황

성시회원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도안드립니다.

회원님들의 지극하신 정성으로 성시화운동은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9월분부터 후원금 결과를 지상으로 보고 드리려고 하오니 해량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후원자

- 월 1,000원 : 왕순옥 김현철 안미정 이병연 안정숙
월 2,000원 : 성기은 박승희 고선희 신영숙 박기희 허순영 정유양 한희현
월 3,000원 : 홍순복 최경용 이봉자 임은경 이준택 정순녀 권순이
월 5,000원 : 이홍순 황병찬 정찬복 홍성운 최일정 박동환 오홍수 장수영
신만승 고신옥 황용학 황희중 김숙자
9,000원 : 신영자(합계)
월 10,000원 : 신성균 천우석 한석웅 조광수 윤진옥 이문자 김영선 김종혁
박무일 김복옥 남궁진 김진삼 임외호 최구식 김남철 맹영웅
장기영 이경숙 안동규(30,000)
18,000원 : 이화자(합계)
월 20,000원 : 김태중 김철수 양인평 김영명 조충환
24,000원 : 이정자(합계)
월 30,000원 : 조남진, 유근창, 정동준, 이상표
월 100,000원 : 조은제 윤진배 이용규(200,000)
120,000원 : 김은양(합계)

단체 후원자

- 월 20,000원 : 춘천택시(주) 직장선교연합회
30,000원 : 새명동 헤어샵(합계)
월 40,000원 : 일신장로교회(합계)
월 50,000원 : 열린교회 · 알로에 마임
90,000원 : 경찰청 신우회(4월~12월)
월 500,000원 : 중앙성결교회
월 832,960원 : 순복음 춘천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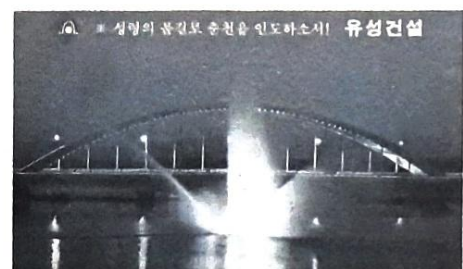
기타 후원자

- 성시신문광고 후원(중앙성결교회) 500,000원
- 국가정보대학원장(이범찬) 300,000원
- 순복음춘천교회(김주환목사) 500,000원
- 기타 후원약속 금액(송금중)



(합) 유성건설

대표 申鍾澈



춘천시 석사동 696-3번지
TEL : (0361) 261-6661 (0361) 262-6662
FAX : (0361) 262-6663 H P 011-369-1078

춘천교회사

춘천선교의 뿌리

- 춘천 중앙 감리교회 -



권오서 목사
춘천중앙감리교회

세국정책으로 외국문물을 받아드리지 않던 조선말기...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아침은 아펜젤러목사와 언더우드목사가 이땅에 복음의 사역자로 서울에 입성한 날이다.

이들 두분의 선교사가 고종황제의 윤허로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을 하면서 기독교를 전파하기 시작함으로써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되는 첫 기틀이 되었다.

그로부터 17년후... 1902년 옛 맥국(驛國)의 수도 춘천에는 감리교의 순회전도사 김기순(金基純)이 권서(勸書: 성경판매회)의 자격으로 춘천을 다녀간후 그해 10월 30일 경기도 고양포 교인 이덕수(李德洙)씨가 파송받아 사역함으로써 춘천중앙감리교회가 태어났다.

당시 춘천군 아동리(현. 봉의동)에 초가 5칸을 사서

안채는 목사관으로 쓰고 사랑채는 예배당으로 쓰면서 10여명의 성도가 신앙의 모체를 이루다가 6년후 1908년 48칸 합석집으로 옮겼으며 1925년에는 지금의 요선시장부근에 기억자(기) 모양의 2층선교관을 지어 유치원 요리강습소 성경공부방 양재실과 예배처소로 사용하였으나 1950년 6.25사변으로 불타버렸다.

1953년 수복후 미국남감리교선교부 병원건물을 매입하여 수리 증축한후 예배당으로 사용하다가 1971년 김연호목사가 재임시 등대모양의 최신형 성전 245평을 현위치인 옥천동 73번지에 봉헌하였고 그후 기도원과 주디기념관을 건립한 광철영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한후 현재는 목회학 박사인 권오서(權五瑞)목사가 1988년 4월 3일 부활절 아침에 제26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시무하고 있다.

부임후 10년동안 양적 질적으로 교회가 크게 부흥하여 다가오는 21세기 변화의 새시대를 향해 새로운 목회비전을 나누며 춘천의 복음화와 지역선교에 힘쓰는 모교회의 역할을 감당코자 교회



성시회원모집

송금방법

- 후원방법은 자동이체가 편리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시 신분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기래은행 방문
농협 203-02-280238
(예금주/조남진)
강원은행 509-05-025501-001
(예금주/조남진)
우체국 200022-0239352-12
(예금주/조남진)
국민은행 301-01-0585-522
(예금주/조남진)
제일은행 625-20-265119
(예금주/조남진)
- 매월 5일 강원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시 입금수수료가 없는 날입니다.

내고장 춘천을 위하여 봉사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춘천을 서로 믿고 사는 아름다운 도성으로 만드는 일은 먼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니까요!

- 단체인원 - 모든교회, 각 직장선교회, 선교기관
- 일반회원 - 개인별
- 회비 - (단체) 월1만원이상, (개인) 1천원이상
- 년회비 - 10만원, 특별회비 : 5만원 이상, 평생회비 : 100만원 이상. 송금은행 및 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성시신문 기사 보내주세요

- 뉴 스 : 교회행사계획 · 결과, 목회자 동정, 국내외 선교, 선교단체 소식(사진필 요시 첨부)
- 투 고 : 목회자설교, 간증, 성도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 시, 그림, 만화, 만평, 자녀교육 등
- 광 고 : 교회, 선교단체, 기업체, 개인 등

보낼곳 · 기간 · 방법 : 매월 10일전까지 전화 또는 문서 · 리포트 방문취재

춘천성시신문 담당자 앞

☎ 256-1260-1 FAX 257-1260

※본 신문은 3,000부를 발행하며 무료입니다.

창립1백주년 기념성전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4년후 주후 2002년 10월 30일 역사적인 날을 위하여 오는 10월 26일 춘천시 퇴계동 212번지 1만6천4백56평의 부지위에서 기공예배를 드린다.

지하2층 지상4층 본당과 선교교육관

연건평 2985평중 2100석규모의 본당이 2000년 4월 25일에 우선 봉헌된다.

춘천중앙교회의 교세는 목사5명 전도사2명 선교사4명 시무장로18명 원로장로11명 권사집사등 임원630여명과 1300여명의 성도가 4부로 나누어 예배를 드리고 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

춘천중앙교회

담임목사 권오서

교구목사(서·북)	김선진	원로 목사	광철영
교구목사(동·남)	한주희	소속 목사	신요섭
행정 기획 목사	김신섭	원로 장로	이복희 이기환 한석희
교육 목사 (인도네시아)	김송희		심재환 김중순 안 민
	이희문		이경애 황정길 신성주
교육 전도사	장용범		민병재 함영자
	김희산	시무 장로	김기태 이승오 임봉수
			곽부근 정세연 강기호
파송 선교사 (인도네시아)	어성호		이영식 정진환 권순길
	조시철		김창수 강창기 김교익
	윤은진		송종철 조한진 신경희
후원선교사(독일)	윤종만		이영태 조명강 이은희

200-010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73번지
☎(0361) 교회 255-3561~4